

# SK, 베트남과 정유 14만배럴 합작

## PetroVietnam과 탄호아 정유공장 합작 합의 ... 원유 7억배럴도 확보

SK가 베트남 국영 석유회사인 PetroVietnam과 합작으로 베트남에 정유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SK는 4월28일 탄호아 정유공장 건설 등 현지에서의 석유사업 전반에 걸친 공조를 위해 PetroVietnam과 상시 협력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기로 합의했다.

2010년 완공될 예정인 탄호아 정유공장은 하루 14만배럴의 정제능력을 갖출 것으로 알려졌다.

SK 유정준 해외자원개발사업 전무는 Petrovietnam을 방문해 2010년까지 싱가포르, 휴스턴 등 해외 6개 법인·지사망을 독립적으로 운영해 해외자원 개발에서 석유 트레이딩, 원유정제 사업까지 해외 6대 허브를 육성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신 석유 메이저로 성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유정준 전무는 베트남 정부가 북부 탄호아성에 2010년까지 건설하기로 한 제2 정유공장에 대한 지분 참여를 PetroVietnam과 논의했으며 상시 교류·협력을 위해 협력위원회를 구성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SK를 아시아·태평양 신 메이저로 성장시키기 위해 전 세계 지분참여 광구의 원유 매장량을 현재 3억배럴에서 7억배럴로 크게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화학저널 2005/05/02>